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자립 준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효과*

강 승 립 손 하 립 박 종 철 이 동 귀[†]

연세대학교

본 연구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그들의 자립의지, 양육효능감 등을 증진시키고, 자립수준,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의 개발과 효과 검증을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청소년 미혼모 대상 설문조사와 심층면담을 토대로 10회기 자립준비 개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녀와 함께 시설에서 퇴소할 예정인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 9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자립의지, 양육효능감, 자립수준 및 자존감에 대한 사전·사후·추후(2주 후) 시점에 수집하여,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무처치 통제집단 9명과 그 수준을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처치집단은 자립의지 수준이 프로그램 전후로 유의하게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프로그램 종결 후 2주 후까지 유지되어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반면, 청소년 미혼모들의 양육효능감은 사전·사후 차이검증에서는 증가 경향성만 보였으나, 사전·추후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정서자립은 프로그램 사전·사후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사후·추후 검증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준비를 위한 프로그램'이 지니는 의의와 제한점과 논의하고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주요어 : 청소년 미혼모, 자립 준비, 집단상담 프로그램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8S1A5A2A01033872).

† 교신저자: 이동귀, 연세대학교,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로 50 연세대학교 위당관 612호
Tel: 02-2123-2437, E-mail: lee82@yonsei.ac.kr

청소년 미혼모란 법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및 출산을 한 만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한부모가족지원법, 2018). 청소년 미혼모는 '청소년'과 '미혼모'라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갖고 있다(김은지, 황정임, 2012). 이들은 보편적으로 성인기의 과업에 해당하는 임신을 청소년기에 겪게 되면서 발달과업의 불일치로 인한 어려움에 직면한다(이은림, 이근매, 2005). 이들 중 임신과 출산으로 인하여 원가족과 단절되고, 아이 아빠와의 연결도 끊어지는 등 사회적지지 기반이 약화된(지수연, 2002) 청소년 미혼모들은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서 출산과 초기 양육에 도움을 받게 된다(김은지, 최인희, 최윤정, 최진희, 김혜영, 2016).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거주한 청소년 미혼모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퇴소를 하게 되는데 퇴소후에는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원가족의 도움 없이 아이를 양육하며 독립적인 가정을 꾸리게 된다. 이 때 자립이란 경제적 자립을 포함한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사회·정서적으로 본인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송지현, 정소희, 2016),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미혼모들의 자립에는 경제적인 자립뿐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박영란, 강철희, 1999). 정리하자면,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이란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사회구성원으로 생활하며(장인경, 2013), 동시에 스스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을 퇴소하고 지역사회에 적응하는 초기 단계에 정서적으로 취약한 경우가 많다(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모의 시설 퇴소 후 삶에 대해서 연구한 질적 연구에서는 이 시기에 자립을 위한 준비를 어떻게

했느냐가 이후의 삶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보고한다(이용우, 양호정, 2019). 그러나 실제로 지역사회에 자립하여 살고 있는 재가(在家) 미혼모들은 단계별 자립 준비가 미흡하여 자립 후 많은 어려움을 호소한다(장은정, 2017). 특히 청소년 미혼모는 다른 취약계층 청소년에 비해 자립 준비에 취약하여(조규필, 정경은, 2016), 자립을 준비하지 못하고 퇴소할 경우 경제적·정서적 빈곤에 빠지기 쉽다(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청소년 미혼모의 빈곤은 자녀에게 대물림되기도 하는데, 선행연구에서 한부모 가정의 약 30%는 빈곤에 더하여 한부모 가족 유형, 사회적 지위까지도 대물림(김지연, 2014)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청소년 미혼모의 준비 없는 자립은 미혼모 개인을 비롯하여 자녀, 부모 및 원가족과 사회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는 추가적인 사회복지비용 지출(조주은, 2010)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 단계의 청소년 미혼모들이 체계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개입과 그 효과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시설 거주 미혼모들의 퇴소 후 자립과 관련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시설 거주 미혼모들의 자립과 자립 의지(박영란, 1998; 박경숙, 박능후, 2001)에 대한 연구, 자립지원방안 및 자립지원제도(김미숙, 문진영, 2015)와 같은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다. 위의 연구에서는 자립의 의미를 경제, 심리, 사회적 자립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심리적 자립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심리적 자립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루는 연구는 부족하다.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퇴소 후 지역사회에 안정적인 안착을 위한 적절한 지원제도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어떤 퇴소 전과 후에 어떤 심리상태에 놓여있고 어

편 욕구를 갖고 있는 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귀 등(2019)은 시설에서 퇴소 후 자립준비를 하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해서 면담을 진행하고 이를 개념도 방법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미혼모들은 자신들이 혼자서 자녀 양육을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이 가장 컸다. 또한 의지할 수 있는 사회적 관계가 없어서 외로움을 호소하기도 미혼모의 정서적 안정은 사회로의 복귀를 보다 수월하도록 도움을 준다(장복례, 2006). 미혼모들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과 좌절감은 장기적으로 이들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김혜경 등, 2009). 이처럼 양육 미혼모들은 심리적·정서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대부분의 지원이 경제적인 지원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여성가족부(2005)의 조사결과 미혼모들은 사회적 지지체계와 단절된 상황에서 홀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며 경험하는 ‘마음의 혼란’을 큰 문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입양과 양육의 갈등 속에서 많은 고민과 두려움 상태에서 양육을 결정하게 된다(이명희, 2007).

이처럼 홀로 자녀를 양육하는 양육미혼모에게 삶의 질이나 만족감은 결혼을 한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집단과는 다른 특성을 보인다. 청소년 양육 미혼모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남미애(2013)는 전반적으로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확인했는데,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가 낮고, 부모지지가 높을수록, 그리고 미혼모를 바라보는 지역사회 편견과 차별이 낮다고 인지할수록 생활만족이 높게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는 한부모 여성가장의 스트레스원 중에서도 가장 빈도가 높은 것으로(김혜란, 2006)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자녀와 함께할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고,

자녀가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의 어려움이 크므로 전반적인 생활만족에 영향(전혜자, 김미량, 2006)을 준다.

시설에 입소해 있는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양육모 그룹홈 입소자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2006)’에서는 미혼모가 아이를 입양보내지 않고 양육하기로 결정한 동기 중 ‘친엄마가 양육하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함’이 75%로 가장 높게 나타나 미혼모들이 엄마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 미혼모들의 삶의 질에 대한 질적 연구도 다수 보고되고 있다. 이현주와 엄명용(2013)은 시설에서 거주했던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퇴소한 후 지역사회로 돌아가서 경험한 4년 동안 삶의 과정과 경험에 대해서 중단연구를 진행하였다. 결과를 보면, 출산 후 자녀 생후 1년간은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타인들의 차가운 시선에 위축되어 심리적 괴로움이 컸다. 생후 2년까지는 직업을 갖고 자립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생후 3년째에는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삶에 접어들지만 원가족과 갈등을 겪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외로움과 그리움이 커지는 시기로 나타난다. 박윤아와 이영호(2017)는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에서 ‘양육의지’가 삶의 질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고한다. 또한 양육을 결정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긍정적 경험, 변화, 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처럼 미혼모들은 자녀 양육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한 편, 잘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육미혼모의 전반적인 생활만족이나 건강한 삶에 대해 ‘양육스트레스, 부모지지, 편견과 차별’ 등이 영향을 주고, 양육미혼모의 양육스

트레스는 '부모역할만족도, 양육의지, 사회적 지지' 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가하면 일부 양육 미혼모들은 출산과 자녀양육을 스스로 선택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면서 적극적인 태도를 나타내며(김영신, 2011; 김현경, 이민영, 2008), 자녀로 인하여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행복을 느끼거나 책임감이 강해지고 삶에 대한 목표가 뚜렷해지는 등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김혜정, 안상수, 2009).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양육효능감을 높여주고 자립에 대한 의지와 자존감을 높여주어 자립과 홀로 하는 자녀 양육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자녀 양육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이 필요하다.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미혼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주로 취업 및 직업훈련으로 편성되었고(이용우, 양호정, 2017), 청소년 미혼모들의 다양한 욕구와 특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시설에서 제공하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은 제한된 영역에서 지식(예: 진로교육, 육아지식)을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한부모가족지원팀, 2016). 더불어, 선행연구에서의 미술상담, 정서상담, 집단상담 등의 시도들은 양육미혼모들의 욕구를 고려하기보다는 프로그램 목적을 연구자가 설정하고 진행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김정아, 류영화, 2012; 배유선, 2014; 유세나, 2015).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예비부모 프로그램(지수연, 2012)은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와 부모역할 만족도 향상에 효과적이었지만, 청소년 미혼모의 요구를 반영하

지 않았으며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또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심리적 울타리 형성 프로그램(한부모가족지원팀, 2016)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신의 강점을 찾고, 개인 내적인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데는 의의가 있으나, 개입 초점 변인의 변화양상을 양적으로 파악할 수 없고 정서조절, 의사소통 기술과 같은 자립에 필요한 현실적인 대처방안을 습득하기는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최근 자녀를 양육하기로 결정한 미혼모들이 증가하면서(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STEP(Systematic Training for Effective Parenting) 부모교육 프로그램, PET(Parent Effectiveness Training), APT(Active Parenting Training) 부모역할 프로그램, EPT(Empowering Parenting Training) 부모교육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있다(정옥분, 정순화, 2007).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전부 외국에서 개발되어 국내에 도입되었고, 주로 20대 후반의 성인 부모를 대상으로 편성되어 아기에게만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박영희, 2001) 청소년 미혼모에게 직접 적용하기에는 제한적이다.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에서 자녀 양육뿐 아니라 미혼모 본인의 정서적 안정도 매우 중요하나, 이들이 자립 과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자녀와의 관계를 비롯한 타인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이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립의지, 양육효능감, 자립수준, 자존감관련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과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진행하고자 한다. 프로그램 개발 시에는 프로그

램 개발 절차를 따르고, 프로그램 내용이 구성시 당사자들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자립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실질적이면서 체계적인 도움이 되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자립에 대한 의지를 함양하고, 원활한 자녀와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 퇴소 후 자립을 준비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자립을 준비할 수 있는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개발한 후 프로그램이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 개발

기획단계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준비를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내용과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파악하기 위해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그 결과(이동귀 등, 2019)를 프로그램 개발의 토대로 삼았다. 시설에 거주하며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통해 이들의 불안과 욕구를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은 지지적인 대인관계에 대한 요구가 높고 양육과 관련된 불안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시설 언니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위로와 위안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와 같이 대인관계 체계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더불어, 양육 부담이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을 위협하는 요소 중 두 번째로 중요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아이를 누구한테 맡기는 게 요새는 너무 무섭다.', '아이를 직접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어린이집 보내기 싫은데 돈 벌려면 보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어렵다.', '아기를 잘 케어 못 해줄 것 같아 걱정된다.'와 같은 반응이 많았다(이동귀 등, 2019).

이 결과들로부터 알 수 있는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에 위협요인은 사회적 지지 자원부족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있고, 보호요인은 자녀 양육과 관련된 효능감과 청소년 미혼모 개인의 내적 성숙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청소년 발달 단계에서 수반되는 정체성의 혼란 속에서 엄마 역할을 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또한 자녀와 함께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은 양육과 관련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나 양육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불안정한 주변 환경(원가족과의 단절, 낮은 사회적 지지체계)로 인해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거나 비현실적으로 낙관적인 미래를 전망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이 이중역할로 인한 어려움과 자립에 대한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녀와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부모교육과, 자신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타인과의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아울러, 집단운영자는 비밀유지에 유의하고 집단구성원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충분한 표현이 가능한 수용적이고 중립적인 태도를 포함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 지원을 위한 단기개입 프로그램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문헌 조사에 의하면 엄마의 자기 이해를 증진시키고 자녀 양육에 대한 교육을 모두 포함한 양방향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애착에 기반한 Circle of Security 부

모교육 프로그램은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효능감을 향상시키고, 학습된 무기력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수연, 2012).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에 선정된 개입요소는 양육효능감, 자립의지, 자립준비(경제자립, 생활자립, 관계자립, 정서자립), 자존감의 네 가지이다.

구성단계

프로그램 모형을 2단계로 제시한다. 우선, 1 단계에서의 목표는 자신을 이해하고 더 나아가 타인과의 관계 개선을 돕는 것이다. 참여자들은 자립에 앞서 개인으로서의 욕구와 양육에 필요한 역할 수행 사이에서 느끼는 감정과 생각을 탐색하고, 수용적인 환경에서 이를 함께 나누고 적절하게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을 습득한다. 이 단계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이 목표를 달성하면 정체성 혼란과 역할 갈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절충안을 학습하고 이후 개인 내적 갈등 상황을 성숙하게 대

처하는 방안을 습득하게 된다. 더 나아가 자립 후 도움을 얻을 수 있는 타인과의 지지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하도록 돕는다.

2단계의 목표는 나와 자녀의 관계를 이해하고 부모교육을 진행하여 자녀 양육에서 기인한 심리적 정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양육효능감을 높이는 것이다. 자립에 앞서 안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를 맺음으로 성공적인 자립의 기반을 다질 수 있으며 자립에 대한 의지를 보다 굳건히 할 수 있다. 또한, 자녀에게도 엄마와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시설에서 퇴소를 앞둔 시점에서 자녀의 연령이 만 3세 미만이기 때문에 자녀와의 애착 형성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 자녀와 안정적 애착을 형성하도록 돕고 이에 필요한 부모교육을 병행한다면 청소년 미혼모들의 양육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2단계의 구성을 반영한 청소년 미혼모를 위한 단기개입 프로그램 모형과 실체는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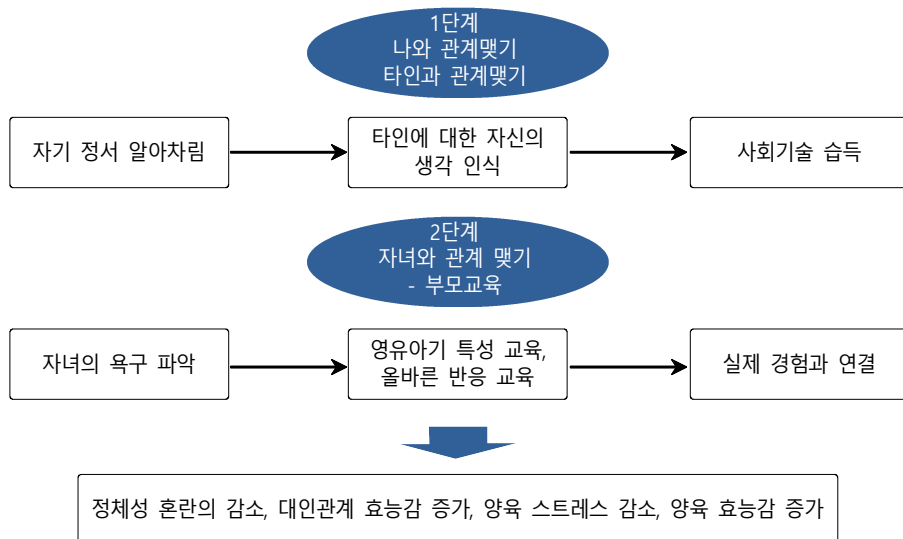


그림 1. 프로그램 모형

분), 5주 동안 진행되었다. 일주일에 한번 모일 때 45분씩 2회기를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내 집단상담실에서 실시하였다. 집단상담은 한국상담심리학회 2급자격증을 보유한 중학교 전문상담교사가 운영하였다. 이 프로그램의 단계는 관계를 통한 자기이해, 양육효능감 증진을 위한 부모교육으로 구분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자립준비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생활양식과 고민이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는 퇴소 시점이 비슷한 8~10명의 소수 규모가 적절하다. 매 회기에서 진행할 주제, 목표, 활동내용을 포함한 구체적인 구성내용은 표 1과 같다.

프로그램 효과 검증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연구 참여자는 서울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거주 중이며 자녀와 함께 시설을 퇴소할 예정인 만 24세 미만의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저자 중 1인이 시설관계자의 협조를 구한 뒤, 사전 방문하여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참여방법, 참여과정을 설명하였다. 이들에게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서를 제공하였고, 동의한 경우에만 최종적인 참여자로 확정하였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참여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구해야하지만, 신상의 안전을 위해 본인이 개인정보 비밀보장을 요청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제 생활 관리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사의 동의를 구했다. 사후 연구 결과에 대해 문의할 수 있도록 참여자에게 연구자의 연락처를 제

공하였다.

연구 참여자는 총 18명으로 처치집단 9명, 통제집단이 9명이었다. 처치집단은 5회기의 집단상담에 참여하였고, 통제집단은 설문조사에만 응답했다. 통제집단 참여자 중 집단 상담에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대기자 명단에 포함하여 연구 종료 후 집단상담을 제공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집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세 시점(사전-사후-2주후) 별 설문(척도 묶음)을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마지막 회기에 참석하지 않거나, 추후 설문에 참여하지 않은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처치집단 3명, 통제집단 3명). 최종적으로 처치집단 6명, 통제집단 6명의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제1저자가 소속된 학교의 연구윤리위원회(IRB)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였고, 미혼모 거주시설 담당자에게 사전 협조를 구해 연구 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청을 받아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처치집단 참여자 중 10대는 2명이었고, 평균연령은 20.52세($SD = 3.12$)였다.

연구절차

본 연구에서는 상담 및 심리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김창대, 김형수, 신을진, 이상희, 최한나, 2011)에서 제시한 대로 기획, 구성, 실시 및 평가를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심층면담 및 청소년 미혼모 자립 지원 현장 실무자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준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선행 연구의 설문조사 및 개념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요구 분석, 목표 수립 등을 기획하였고 전문가와의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 모형

개발 및 내용 구성단계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예비연구를 통해 프로그램을 평가 및 수정 보완하여 개발하고, 실행 및 평가 단계를 진행하여 최종 프로그램을 완성하였다.

측정도구

양육효능감

청소년 미혼모의 양육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안지영(2000)이 번안 및 수정하여 사용한 Floyd, Gilliom과 Costigan(1998)의 지각된 양육효능감(Perceived Parenting Competence) 측정도구를 활용하였다. 양육효능감 측정도구는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4점)'의 4점 척도로 되어있고, 최저점은 15점, 최고점은 60점이다. '부모 노릇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부모 노릇은 내가 이전에 생각한 것보다 어렵지는 않다.', '종종 아이를 실망시킬까봐 걱정한다.'와 같은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낮을수록 양육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해석한다. 안지영(2000)의 연구에서 보고한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참여인원의 소수였기 때문에 내적합치도를 계산하지 않았다(이하 동일).

자립의지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의지를 측정하기 위하여 조규필(2014)이 개발한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Independent Living Rediness Scale: ILRS)의 하위요인 중 자립의지 요인에 해당하는 4개의 문항을 사용하였다. '나는 자립하는데 있어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자신이 있다'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혀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5점)'인 Likert 5점 척도이다. 조규필과 정경은(2016)의 연구에서 보고한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97이었다.

자립수준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김정연, 하지선과 김인숙(2011)이 십대 여자 취약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한 자립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총 4개의 하위차원(경제자립, 생활자립, 관계자립, 정서자립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매우 그렇지 않다(1점)', '매우 그렇다(4점)'의 Likert 방식의 4점 측정도구이다. 경제자립은 금전관리, 직업준비의 내용을 포함하며, 생활자립은 시간관리, 위생관리 같은 일상생활관리와 관련된 문항이다. 관계자립은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하려는 노력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정서자립은 정서조절과 안정성에 대한 문항이다. 합산 점수가 높을수록 자립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김정연 등(2011)이 연구에서 보고한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5였다.

자존감

청소년 미혼모의 자존감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Rosenberg(1965)가 개발하고 이훈진과 원호택(1995)이 번안한 Rosenberg Self-Esteem Scale(RSS)을 사용하였다. RSS는 Likert식 4점 척도로, 긍정문항 5문항과 부정문항 5문항 총 10문항으로 구성된다. 이훈진과 원호택(1995)의 연구에서 보고한 문항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실험설계

본 연구에서는 이질통제집단 전후검사설계를 적용하여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였다. 독립변인은 2집단(처치집단, 통제집단)과 3시점(사전, 사후, 추후)이며, 종속변인은 양육효능감, 자립준비도, 자존감이다. 실험설계 모형은 그림 2와 같다.

자료 분석

자료는 SPSS 21.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사례수가 적어서, 비모수 검정 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노경섭, 2014). 우선 처치집단, 통제집단이 동질적인지 확인하기 위해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 후 각 집단내의 측정 시기에 따라 관찰변인 측정값의 변화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Fried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측정 시기에 따른 관찰변인 점수에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각 시기별로(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실시하였다.

처치집단	O ₁	X ₁	O ₂	O ₃
통제집단	O ₄	X ₂	O ₅	O ₆

O₁ O₄ O₇: 사전검사(양육효능감, 자립의지, 자립수준, 자존감)

O₂ O₅ O₈: 사후검사(양육효능감, 자립의지, 자립수준, 자존감)

O₃ O₆ O₉: 추후검사(양육효능감, 자립의지, 자립수준, 자존감)

X₁: 처치(자립준비 단기개입 프로그램)

X₂: 통제(무처치 집단)

그림 2. 실험설계 모형

결 과

집단 간 사전 동질성 검정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사전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집단 간 양육효능감, 자립의지, 자립수준(경제자립, 생활자립, 관계자립, 정서자립), 자존감에 관한 Mann-Whitney 검정을 실시한 결과, 집단 간 모든 관찰변인의 사전 점수의 유의확률이 .60이상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간 사전 동질성이 갖추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처치집단 중 분석에 포함된 6명은 모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다음 시설에 입소하였으며, 시설에 거주하는 동안 출산하였다. 임신 중이었지만 출산으로 참여를 중단한 대상자의 자료는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처치집단 참여자는 모두 시설 거주 기간은 1년 미만이었으며, 퇴소하여 자립하기로 결정하였다.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의 효과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을 위한 프로그램(이하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과 무처치 통제집단 사이의 측정 시기에 따라 각 관찰변인과 관찰변인의 하위요인에 유의한 점수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Friedman 검정을 실시하였다. 이때, 참여자 수가 6명이므로 모든 분석에 정규분포를 가정하지 않는 비모수 통계방법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의 양육효능감, 자립의지, 자립수준, 자존감의 점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각 시기(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별로 윌콕슨 부호 순위 검정(Wilcoxon Signed -Rank Test)을 실시하였다.

표 2. 집단별, 측정 시기별 평균 및 표준편차

종속변인		집단	사전 <i>M(SD)</i>	사후 <i>M(SD)</i>	추후 <i>M(SD)</i>
양육효능감	전체	처치	36.44(4.39)	38.17(4.26)	40.57(1.99)
		통제	37.66(1.73)	39.83(1.47)	39.25(1.58)
자립의지	전체	처치	11.67(2.00)	14.67(1.03)	16.00(2.16)
		통제	11.66(1.50)	10.66(2.06)	15.38(3.07)
자립수준	경제자립	처치	19.22(2.86)	19.57(2.87)	18.86(2.79)
		통제	17.56(6.80)	15.88(3.25)	20.13(2.32)
	생활자립	처치	14.33(2.35)	13.57(2.23)	14.43(2.30)
		통제	14.00(3.77)	13.00(1.90)	13.31(2.02)
	관계자립	처치	15.89(3.02)	15.71(2.21)	15.43(3.31)
		통제	15.67(4.19)	14.33(3.32)	16.00(.053)
	정서자립	처치	21.56(3.43)	21.86(1.95)	23.13(3.93)
		통제	20.44(3.78)	19.67(1.75)	21.13(2.48)
자존감	전체	처치	28.56(7.10)	27.14(4.22)	27.26(7.95)
		통제	28.12(2.48)	27.67(6.28)	28.38(4.47)

각 집단별, 측정시기별 종속변인의 평균 및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관찰변인에 대한 Friedman 검정 결과, ‘자립 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은 자립의지 [$\chi^2(2, 6) = 10.17, p < .01$] 및 자립수준의 하위요인 중 정서자립 [$\chi^2(2, 6) = 6.09, p < .05$]에서 측정 시기에 따른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반면,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모두에서 양육효능감[각각, $\chi^2(2, 6) = 4.36, p > .05$, $\chi^2(2, 6) = 4.36, p > .05$], 경제자립[각각, $\chi^2(2, 6) = 2.24, p > .05$, $\chi^2(2, 6) = 5.98, p > .05$], 생활자립[각각, $\chi^2(2, 6) = .11, p > .05$, $\chi^2(2, 6) = .40, p > .05$], 관계자립[각각, $\chi^2(2, 6) = .82, p > .05$, $\chi^2(2, 6) = 4.95, p > .05$], 그리고 자존감[각각, $\chi^2(2, 6) = .26, p > .05$, $\chi^2(2, 6) = .78, p > .05$]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양육효능감, 경제자립, 생활자립, 자존감의 증진에 효과가 있지 않음을 의미한다. 통제집단에서는 자립의지와 정서자립을 비롯한 모든 관찰변인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에서 나타난 효과가 구체적으로 어느 측정 시기에서 관찰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집단 내 측정 시기별(사전-사후, 사후-추후, 사전-추후)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자립의지는 사전-사후($Z = -2.21, p < .05$), 사전-추후($Z = -2.39, p < .05$)의 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처치집단은 프로그램 종결 직후 자립의지 수준이 사전점수

표 3. 관찰변인의 집단별, 측정 시기별 점수 비교

종속변인		집단	사전 평균순위	사후 평균순위	추후 평균순위	χ^2
양육효능감	전체	처치	1.33	2.33	2.33	4.36
		통제	1.33	2.42	2.25	4.46
자립의지	전체	처치	1.00	2.25	2.75	10.17**
		통제	1.50	1.67	2.83	6.01
자립수준	경제자립	처치	1.58	2.25	2.17	2.24
		통제	1.83	1.42	2.65	5.98
	생활자립	처치	2.00	1.92	2.08	.11
		통제	2.08	2.25	1.67	.40
	관계자립	처치	2.24	1.75	2.00	.82
		통제	2.17	1.33	2.50	4.95
	정서자립	처치	1.83	2.75	1.42	6.09*
		통제	2.25	1.75	2.00	.90
자존감	전체	처치	2.08	1.83	2.08	.26
		통제	2.25	1.75	2.00	.78

주. * $p < .05$, ** $p < .01$, *** $p < .001$

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향상되었으며, 이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가 지난 시점에서도 지속되었음을 의미한다. 정서자립은 사후-추후($Z = -2.23, p < .05$)의 구간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는 프로그램 직후에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종결 이후에 정서자립 증진이 있

표 4. 처치집단에서 관찰변인의 각 측정 시기별 점수 변화 비교

종속변인	측정시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사례수	Z	
		N	평균순위	순위합	N	평균순위	순위합			
양육 효능감	전체	사전-사후	1	2	2	5	3.80	19.00	0	-1.80
		사후-추후	2	3.25	6.50	2	1.75	3.50	2	-.55
		사전-추후	1	2.50	2.50	6	4.25	25.50	0	-1.98*
자립 의지	전체	사전-사후	0	.00	.00	6	3.50	21.00	0	-2.21*
		사후-추후	1	4.00	4.00	4	2.75	11.00	1	-.966
		사전-추후	0	.00	.00	6	4.00	28.00	0	-2.39*

표 4. 처치집단에서 관찰변인의 각 측정 시기별 점수 변화 비교 (계속)

종속변인	측정시기	음의순위			양의순위			동률 사례수	Z	
		N	평균순위	순위합	N	평균순위	순위합			
경제 자립	사전-사후	1	4.50	4.50	4	2.63	10.50	2	-.813	
	사후-추후	2	1.75	3.50	1	2.50	2.50	3	-.272	
	사전-추후	2	4.25	8.25	4	3.13	12.50	1	-.42	
생활 자립	사전-사후	2	2.50	5.00	2	2.50	5.00	3	.00	
	사후-추후	2	3.00	6.00	3	3.00	9.00	1	-.41	
	사전-추후	2	3.50	7.00	3	2.67	8.00	2	-.14	
자립 수준	관계 자립	사전-사후	4	3.25	13.00	3	5.00	15.00	0	-.17
		사후-추후	2	4.50	9.00	3	2.00	6.00	1	-.41
		사전-추후	4	3.13	12.50	2	4.25	8.50	1	-.42
정서 자립	사전-사후	1	2.00	2.00	5	3.80	19.00	1	-1.80	
	사후-추후	0	.00	.00	6	3.50	21.00	0	-2.23*	
	사전-추후	3	4.17	12.50	3	2.83	8.50	1	-.42	
자존감	전체	사전-사후	4	4.88	19.50	3	2.83	8.50	0	-.93
		사후-추후	2	2.25	4.50	4	4.13	16.50	0	-1.27
		사전-추후	4	3.13	12.50	2	4.25	8.50	1	-.42

주. * $p < .05$, ** $p < .01$, *** $p < .001$

있음을 나타낸다. 유사하게, 양육효능감은 프로그램 종결 직후에 평균점수가 약간 상승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Z = -1.98, p > .05$), 사전-추후($Z = -1.98, p < .05$)의 기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 프로그램의 효과가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 결과는 표 4와 같다.

논 의

본 연구의 목적은 시설에 거주 중이며 퇴소를 앞둔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자립준

비 과정에 효과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자립의지, 양육효능감, 자립수준 증진 및 자존감에서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데 있다. 수집된 자료를 토대로 프로그램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자립준비 프로그램에 참여한 처치집단은 '자립의지'의 수준이 프로그램 참여 전후로 유의한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는 종결 2주 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은 사전-사후 구간에서는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전과 종결 2주 후 점수를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자립수준의 하위요인 중 '정서자립'은 사전-사후 구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프로그램 직후(사후)와 종결 2주후의 점수에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미혼모들이 시설에서 퇴소 후 부적응을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들(장운정, 2017)을 고려할 때,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청소년 미혼모들의 적절할 자립 준비를 위한 개입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청소년 쉼터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담 프로그램은 입소 청소년의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육혜련, 2013), 이런 점에서 본 프로그램은 청소년 미혼모들이 거주하는 시설 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퇴소 전 조기 개입을 통해 자립 준비를 도와 청소년 미혼모들이 사회 재진입 과정에서 부적응을 경험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미혼모들의 개인 내적인 성숙을 돕고, 자녀와의 관계 개선 및 자녀 양육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요소는 청소년 미혼모 개인의 성숙이 자립 후 적응에 효과적이며(박윤아, 이영호, 2017), 자녀와의 관계의 질이 자립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이경란, 최정숙, 2017)는 실증적 결과들을 반영한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 문헌 조사 결과 뿐 아니라 청소년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세한 면접 내용과 현장전문가들의 의견을 집단상담 프로그램 모형에 포함하였기 때문에 타당성을 확보하고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 준비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양한 관점에서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자립준비프로그램을 실시한 처치집단에서는 통제집단과 달리 자립의지에서 측정시기에 따른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립의지는

사전-사후 구간에서 유의하게 향상되었고, 무엇보다 이 효과는 프로그램 종료 후 2주 시점에서도 효과가 유지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의 자립준비 프로그램이 자립의지에 대한 개입 및 참여자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경험이 프로그램 효과에 영향을 끼친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자립준비 프로그램에서는 자기 이해 뿐 아니라 경청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대인관계 기술을 습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개입이 생활양식이나 상황이 비슷한 청소년 미혼모들과의 상호작용에 도움이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회기별 경험 보고서에서 집단 구성원 간 정서적 지지와 위로를 받은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즉, 자신과 비슷한 대상을 만나 고민하고 있었던 어려움에 공감을 받고,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을 타당화 받으며 새로운 지지관계를 통한 관계망이 확장되는 경험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시설 내 사회적지지 관계망에서 관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청소년이 자립의지가 높은 점을 고려하면(우수명, 정지윤, 김재환, 2020), 집단 내 상호작용을 통해 지지자원을 확보하면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의지가 향상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청소년 미혼모 스스로 의지를 가질수록 자립 지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만, 가정 밖 여성 청소년의 높은 자립의지에도 불구하고(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처치집단의 회기별 경험 보고서에 의하면 집단원들이 자립에 대한 구체적인 자립계획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청소년 미혼모들을 자립을 위해 정보를 획득하는 경로나 경제적 자립을 위한 구체적인 생활비 마련 방법을 모색하는 것과 같은 생활 밀착형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미혼모들

의 양육효능감은 사전-사후 차이검증에서는 증가 경향성만 보였으나, 사전-추후 차이검증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가 나타났다. 양육효능감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효과를 보인 것은, 자립의지의 변화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립의지가 향상되면서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가 점차 높아져(김은희, 2004)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양육효능감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미혼모들은 혼자 힘으로 자녀를 키워야 한다는 책임감이 크고 육아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클 것이라고 피상적으로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준비가 부족하고(이동귀, 등, 2019),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낮다(오승환, 2006). 본 연구의 자립준비 프로그램에서는 자녀의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히 반응하는 방법, 양육자의 어려움을 인식하고 대처방법을 습득할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지식이 증가하면 어머니-유아 간 의사소통이 증진되고, 양육효능감이 향상된다(문성주, 김성길, 2013). 즉, 본 연구를 통해 자립의지가 높아짐에 따라 육아에 필요한 양육지식을 습득하고자 하는 동기가 생겨 참여자들이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되고, 부모교육의 효과가 유지되어 양육효능감이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다.

넷째,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미혼모들의 자립수준의 하위요인 중 정서자립이 프로그램 사전-사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사후-추후 차이검증에서는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즉, 자립준비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동안에는 정서자립 점수에 변화가 없었지만, 프로그램 종결 후 2주후에는 정서자립 점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는 자립의지 수준이 추후까지 유지되고, 양육효능감이 점진적으로 증가한 결과와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자립수준의 하위요인인 정서자립은 정서조절, 의사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한다. 자립의지는 근로의욕 뿐 아니라 자신의 기본적인 능력과 행동을 조절하는 심리적인 의지(강정희, 2012)라는 점에서, 자립의지 향상이 청소년 미혼모의 정서자립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하였는데, 이러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자립의지와 양육효능감이 일정 수준으로 향상된 다음에서야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우선순위 과제가 양육과 생활이라는 점과 관련이 있다(이동귀 등, 2019). 청소년 미혼모들은 발달과업에서 학업 및 개인성장이라는 청소년기 여성역할과 육아 및 경제활동이라는 성인기 여성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데, 이들은 자녀 양육 걱정으로 직장이나 학업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다(이동귀 등, 2019). 양육의지와 정서적 안정은 청소년 미혼모 삶의 보호요인 이므로, 이들의 자립을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는 양육과 경제적 안정을 우선적으로 도모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진로 및 정서적 안정을 위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미혼모들을 상담하기 위한 효과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프로그램 개발 과정에서 이동귀 등(2019)의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한 자료를 기초로 양육효능감, 자립의지, 자립수준, 자존감을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에 필요 요소로 인식하고 이를 전문가들과 상의하였다. 청소년

미혼모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 양육 미혼모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할 때 단계별(대인관계 능력증진-부모교육-자기이해)로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추후 자녀 양육과 출산을 결정한 청소년 미혼모를 상담할 때,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 기술을 습득하고, 부모교육을 통해 양육에 자신감을 높이고, 자신의 감정과 경험을 인지하고 표현할 수 있도록 촉진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회적 지지망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교육을 통해 자녀 양육에 대한 자신감을 향상시키는데 개입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를 입양 보내지 않고 양육하기로 결정한 양육미혼모들은 양육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 자신이 양육하기로 한 결정을 후회하면서 입양을 고려하거나, 드물지만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한다(이성원, 2009). 청소년 미혼모들이 자립 후 여러 스트레스 상황에 놓이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 사회적지지, 자녀 양육효능감, 양육의지가 양육미혼모의 사회 재적응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박윤아, 이영호, 2017) 이러한 자원을 우선 확보한 뒤, 순차적으로 청소년 미혼모 심리 정서적 요소에 개입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미혼모들을 상담하기 위한 효과적이면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도 시사점이 있다. 처치집단의 회기별 경험 보고서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집단원이 자립을 먼 이야기로 인식하고 있었다. 미래의 자기를 상상하는 것은 적용에 중요하며(Gottfredson & Hirschi, 1990), 미래의 자기에 대한 선명성을 향상시킨 경우 심리 부적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van Gelder, Hershfield, & Nordgren, 2013). 청소년 미혼모들은 양육스트레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압도되어(김혜란, 2006) 현재 지향적 사고에 몰두하고 미래에 대한 일을 생각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기와 함께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임신으로 인한 생리적인 특성으로 자리를 수시로 비우게 되는 등 돌발 상황이 생기기도 했다. 프로그램을 45분 동안 진행하고 10분을 쉬도록 구성하였으나, 예상하지 못한 현장상황에 따라 운영자는 90분을 이어서 진행하면서 수시로 자율적인 휴식을 갖도록 했다. 따라서 청소년 양육 미혼모를 상담할 때는 상담자는 이러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 관련하여, 상담자의 임신·출산 경험이 참여자들과의 라포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일부 참여자들은 ‘엄마처럼 잔소리하는’ 대상이 아닌, 출산과 육아 경험이 있는 성인 여성 상담자가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했다. 청소년 미혼모들은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아이를 출산한 것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걱정하는데(김은녕, 2019), 참여자들은 상담자의 이해적인 태도, 육아 스트레스에 대한 비판단적인 공감에 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했다. 청소년 미혼모 상담은 일반적인 일대일 상담보다 역동적인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담자의 유연하고 적극적인 대처능력이 요구되며, 청소년 발달단계 뿐 아니라 임신·출산·육아 경험을 고려하여 개입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이처럼, 본 프로그램은 부모교육을 통해 청소년 미혼모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녀 양육지식을 습득하도록 돕고, 미래의 자립

을 위한 심리적인 준비를 가능하게 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실제 필요한 요인들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구성요소에 반영하였다. 특히, 본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입증하여 프로그램 단계별 전략에 따른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하였다. 처치집단의 경우, 프로그램 후 유의하게 자립의지가 높아지고 그 효과가 유지되었으며, 양육효능감과 정서자립 수준이 향상되었다. 이는 양육을 결정한 청소년 미혼모의 자립준비를 위한 개입의 틀을 제공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을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의 프로그램 개발과정에서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예비프로그램을 거쳐 프로그램의 수정과정을 거치지 못하였다. 시설에 거주하는 청소년 미혼모들의 입·퇴소의 문제로 지속적인 집단참여가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예비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에 다른 문제점을 보완 수정하는 실행 평가 단계에 미흡한 점이 있었다. 따라서 현장에서 청소년 미혼모를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상황에 맞게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참여자가 출산을 하거나 아기를 돌보느라 회기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지 못하여 집단 비교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집단 참여자를 선발해서 통제집단과 비교집단의 비교 분석을 통해 효과성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본 프로그램은 5주간 2회기씩 진행되어 실시기간이 짧다. 미혼모자시설의 현실적인 제약으로 실시 횟수를 줄이고 프로그램 시간을 45분으로 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의 집단 운영자는 상담 뿐 아니라 임신, 출산 및 육아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

였음에도 불구하고, 상담적인 개입으로 참여자의 자기이해, 의사소통 기술 향상을 돕고 부모교육까지 하기에는 다소 시간적인 부족함을 보고하였다. 특히, 상담자 개인의 경험(출산, 육아)이 청소년 미혼모 집단원과 라포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후속 연구에서는 프로그램 실시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집단 운영자의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이해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프로그램의 효과의 지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료 후 2주만에 추후검사가 실시되었으므로 지속 효과에 대한 일반화에 대한 한계가 있었다. 프로그램의 보다 장기적인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종료 후 반 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한 추후검사를 진행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본 연구는 선행연구의 검토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라 자립지원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하였고, 이러한 모형을 토대로 개발된 프로그램을 청소년 미혼모들에게 실시하여 이들의 자립의지 향상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참고문헌

- 강정희 (2012). 영구임대아파트 거주민의 자립의지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경성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미숙, 문진영 (2015).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저축제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시설수급자 자립적립금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2(4), 1-27.
- 김영신 (2011). 40대 자발적 미혼모의 생애경험에 대한 탐색적 연구-아이 출산과 양

- 육동기를 중심으로 경성대학교 사회과학 연구소. 사회과학연구, 27(4), 419-444.
- 김유경, 조애저, 노충래 (2006). 미혼모의 출산·양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적 지원 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은녕 (2019). 지역사회에서 10대 양육미혼모로 살아가기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논문.
- 김은정, 백혜정, 김희진 (2019).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가정 밖 여자 청소년들의 가출 실태와 자립지원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22(4), 195-240.
- 김은지, 황정임 (2012). 저소득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방안 연구. 젠더리뷰, 26, 79-83.
- 김은지, 최인희, 최윤정, 최진희, 김혜영 (2016).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 개발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김은희 (2004). 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자기효능감이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정아, 류영화 (2012). “두근두근 나의 삶” 미혼모의 자기성장 프로그램 후기. 여성이론, (27), 300-315.
- 김정연, 하지선, 김인숙 (2011). 시설 십대 청소년의 “자립”척도 개발: 십대 여성 지원 시설 입소 및 이용자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3(2), 23-53.
- 김지연 (2014). 청소년 한부모의 생활실태 및 자립지원 방안. NYPI 청소년정책 리포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현경, 이민영 (2008). 자발적 비혼모의 선택 체험에 관한 연구: Parse의 인간되어감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24, 5-36.
- 김혜경, 선보영, 김은영, 정재훈 (2009). 미혼부모의 사회통합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남미애 (2013). 청소년양육미혼모의 우울과 전반적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체계 요인. 한국아동복지학, (44), 91-125.
- 노경섭 (2014). 제대로 알고 쓰는 논문 통계분석 SPSS & AMOS. 서울: 한빛아카데미(주).
- 문성주, 김성길 (2013).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부모효능감과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미래교육연구, 3(3), 1-16.
- 박영란 (1998). 저소득 모자가정의 자립 방안 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박영란, 강철희 (1999). 저소득 모자가정 가구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 91-116.
- 박영희 (2001). 10대 임신 청소년 개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사회 복지학, 8, 77-97.
- 박윤아, 이영호 (2017). 양육미혼모의 삶의 질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22(2), 143-171.
- 송지현, 정소희 (2016). 청소년의 자립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청소년문화포럼, 37(1), 31-56.
- 안지영 (2000). 2-3세 아동을 둔 어머니의 양육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오승환 (2006). 저소득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결정요인: 적응유연성 요인의 탐색. 한국아동복지학, 21, 102-132.
- 우수명, 정지윤, 김재환 (2020). 중장기습터 내

- 청소년 간 사회적지지 네트워크가 자립의지와 자립역량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학연구*, 27(4), 23-41.
- 육혜련 (2013). 청소년쉼터 입소 가출청소년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우울, 불안과의 관계 연구. *보건사회연구*, 33(4), 245-274.
- 이경란, 최정숙 (2017) 지역사회 거주 청소년 한부모의 자녀양육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55, 189-236.
- 이은림, 이근매, (2005). 집단치료가 시설 미혼모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미술치료연구*, 12(4), 845-867.
- 이동귀, 강승림, 박종철, 이수지, 손하림 (2019). 시설에서 자립을 앞둔 청소년 미혼모의 불안과 욕구에 대한 개념도 연구. *한국심리학회: 여성*, 24(2), 105-124..
- 이명희 (2007). 자녀양육을 결정한 미혼모의 경험.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 학위 논문*.
- 이성원 (2009). 미혼 양육모의 부모역할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용우, 양호정 (2019). 양육미혼모의 자립과정에 대한 탐색 - 자립의 영향요인을 중심으로 -.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0, 111-138.
- 이현주, 엄명용 (2013). 미혼 양육모 삶의 경험에 대한 질적 중단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40, 157-187.
- 이훈진 · 원호택 (1995). 자기개념과 편집증적 경향. *심리과학*, 4(2), 15-29.
- 장운정 (2017). 재가 미혼모의 홀로서기 경험 연구: 탈시설 과정을 중심으로. *가족과 가족치료*, 25(3), 497-528.
- 장인경 (2013). 자립 동기화 프로그램이 위기청소년의 삶의 목적, 자립의지 및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강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장복례 (2006).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전혜자, 김미량 (2006). 장애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생활만족의 관계. *한국여성체육학회지*, 20(3), 115-124.
- 정옥분, 정순화 (2007). *예비부모교육*. 서울: 학지사.
- 조규필 (2014). 취약청소년 자립준비도 척도개발 및 타당화. *청소년복지연구*, 16(2), 273-310.
- 조규필, 정경은 (2016). 취약청소년의 자립준비도 분석. *청소년학연구*, 23(3), 267-292.
- 조주은 (2010). 양육 미혼모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현안보고서*.
- 지수연 (2002). 보호시설 청소년 미혼모의 학습된 무기력 감소를 위한 예비부모교육 프로그램 개발. *상담평가연구*, 5(1), 13-20.
- 한부모가족지원팀 (2016). 심리적 울타리 형성을 위한 미혼모 프로그램: 기관에서 출산을 준비하는 청소년 미혼모를 중심으로. *연세상담코칭연구*, 6, 153-174..
- Floyd, F. J., Gilliom, L. A., & Costigan, C. L. (1998). Marriage and the parenting alliance: Longitudinal prediction of change in parenting perceptions and behaviors. *Child Development*, 69(5), 1461-1479.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J. (1965). When dissonance fails: On eliminating evaluation apprehension from attitude measure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 28-42.
- Van Gelder, J.-L., Hershfield, H. E., & Nordgren,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L. F. (2013). Vividness of the future self predicts delinquency. *Psychological Science*, 24(6), 974-980.

1차원고접수 : 2020. 07. 19.

심사통과접수 : 2020. 09. 07.

최종원고접수 : 2020. 09. 18.

JAMS 2.0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Promoting Korean Adolescent Single Mothers'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Development, Implementation, and Evaluation of an Intervention Program

Kang, Seung-rim

Sohn, Harim

Park, Chong-chol

Lee, Dong-Gwi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develops an intervention program for Korean adolescent single mothers and evaluate its effectiveness in promoting their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The program consisted of 10 group counseling sessions based on a previous study (findings from a survey and an in-depth interview). The participants were nine single mothers under the age of 24 who were planning to leave the primary residential care with their children. To evalu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the intervention group's ($n = 9$) will for independence, perceived efficacy in child-rearing, current level of independence, and self-esteem were assessed before-, after-intervention, and at 2-week follow-up to compare the levels with those in the control group ($n = 9$). In results, before- and after-intervention will for independence enhanced significantly, and the improvement was maintained at 2-week follow-up. Although before- and after-intervention efficacy in child-rearing did not show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ir levels, it was enhanced significantly at the follow-up. Lastly, after-intervention and the follow-up emotional independence showed a significant enhancement, despite the insignificant difference when compared the levels before- and after-intervention. Practical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program, and suggestions for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adolescent single mother, preparation for independence, intervention program for adolescent single mother